

예수님과 함께하는 강강술래 아가2:15

한가위 풍속 중에 '강강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밝은 보름 달이 뜬 밤에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모여 손을 맞잡아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돌며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강술래'의 앞부분을 선창하면 뒷소리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어받아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강강술래'라는 말에 대한 여러 유래 중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침략해 오는 왜적에게 우리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남장시키고 손과 손을 마주잡고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춤추게 했더니, 이를 본 왜군들이 질겁하여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래에서 '강강술래'라는 말의 어원이 '주위를 경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강술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풍작과 풍요를 기원함과 동시에 공동체가 하나되어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명절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인 아가서에서는 복된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아름답고 거룩한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며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여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작은 여우는 좋은 포도밭 담장을 허물고 귀중한 포도 농사를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여우는 비록 작은 존재지만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때로는 농사 전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정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건강, 재정, 관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여우를 잡아 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깨어 '주위를 경계하도록', 기도의 '강강술래'를 외쳐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개인과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국가적 위기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강강술래에 동참해야 합니다. 둥근 달을 바라보며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주위를 경계하라)'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선창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밝은 달빛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다같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 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예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서교독 ----- 다같이

105번 감사절(1)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가 족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가 족 :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인도자 :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가 족 :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도자 :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가 족 :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도자 :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가 족 :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성경말씀 ----- 아가2:15 ----- 말은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설 교 ----- 예수님과 함께하는 강강술래 ----- 말은이

기 도 ----- 설교자

찬 송 -----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다같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 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주 기 도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